

재단장 끝낸 케네디센터**Washington Post, August 9, 2005**

지난 4년간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포토맥 고속도로 입구의 램프 설치와 루즈벨트 다리까지의 연결 도로 등을 포함한 이번 공사로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껴왔던 접근상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케네디센터 입구는 주변의 아울렛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차량들과 소풍객들, 주차장 입구와 버스 정차대, 공사 차량과 인파, 쓰레기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이번 공사로 주차장은 500대의 주차 공간이 확장되어 모두 2,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관객들의 주차를 99%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확장된 주차장의 옥상 부분은 공연장소로 활용할 예정인데 따라서 케네디 센터는 두 개의 대규모 야외 공연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공연장 모두 전방의 산들과 포토맥 강이 바라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변화 추구하는 불쇼이 발레**Los Angeles Times, August 7, 2005**

불쇼이 극장의 세계적인 발레단이 극장의 대대적인 보수에 따라 당분간 홀 무대를 떠나 미국 순회공연에 오른다. 유럽에서 가장 장엄한 극장인 불쇼이의 개보수 비용은 자그마치 7억 달러(라 스칼라 극장 개보수 비용의 10배)에 달한다. 불쇼이 극장은 공식적으로 2008년 3월까지 문을 닫게 되며, 발레단은 최소 6개국 해외 공연 길에 올라 로스앤젤레스의 오렌지 카운티 공연예술센터에서 그 첫 번째 무대를 펼치게 된다.

2004년 덴마크 왕립 발레를 그만두고 불쇼이 발레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라트만스키는 그동안 불쇼이가 추구해온 고전적이고 엄격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발레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예술성과 현대적 창의성 간의 균형으로 불쇼이를 21세기에 적합한 발레단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그의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전 세계의 주요 발레단이 이미 오래전에 시도해 본 것들로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인 키로프 발레단이 전통적인 대작 위주의 레퍼투어를 추구하여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불쇼이는 젊은 안무가들을 초청하여 전통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

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누드는 누드로 감상한다?**The Guardian (UK), July 30, 2005**

오스트리아 빈의 레오폴드 미술관이 미술애호가들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다. 지난 29일, 미술관은 1900년대 누드화 특별전 <발거벗은 진실>(The Naked Truth)에 옷을 입지 않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오는 관람객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는 행사를 가졌다.

레오폴드의 피터 바인하우플 마케팅 담당자는 한 세기 전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와 같은 작가들이 다소 과감한 방식으로 대중을 놀라게 했던 것과 같이, 무더위를 잊게 할 뎀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본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한다. 이 특별전에는 클림트의 명화 <Nude Verita>를 비롯한 1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에니스 하우스 복구 재단 출범**The New York Times, August 4, 2005**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축가로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또 다른 역작으로서, 1924년 로스앤젤레스의 펠리시틸즈에 세워진 에니스 하우스(Ennis House)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안이 마련되었다. 미국역사보존기금(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프랭크 로이드 건축을 보호협회 및 로스앤젤레스 환경보존기구와 공동으로, 1994년 지진과 작년 겨울 폭우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에니스 하우스의 복구기금을 모으기 위한 에니스 하우스 재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아스텍 또는 마야신전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실험적인 콘크리트 블록구조를 사용하여 지어진 것으로 1920년대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진 라이트의 4개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지난 홍수 이후 건물의 외관과 남향의 지지역이 손상되어 시 건축당국으로부터 임시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수도꼭지 잠근 설치미술가**Guardian, July 27, 2005**

<흐르는 수도물>(The Running Tap)이라는 제목의 수도꼭지와 싱크로 이루어진 작품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8일부터 계속 물을 틀어놓는 개념주의 설치미술가의 작품이 많은 관객들과 상수도 공급회사의 반대에 부딪혀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었다. 지난 한 달간 80만 리터의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낸 이 작품은 특히 런던 남동부 지역에 발생한 수십 년만의 최악

의 기쁨으로 인해 더욱 비난을 받아왔다. 이 작품을 설치한 마크 맥고완(Mark McGowan)은 상수도 회사인 템즈 워터로부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갤러리 전체에 단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고 작품 전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갤러리 측은 무엇보다도 단수로 인해 관객들의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이 조치를 받아들여야 했다. 작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낭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원래대로라면 1년간 물을 흘려보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태리 문화도시들, 테러 대비책 강화**AKK(Italy), July 18, 2005**

이태리 정부는 주요 문화도시들의 문화재와 예술품, 그리고 이 도시들을 방문하는 연간 8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리 문화부 장관인 로코 부띠글리오네가 발표할 이 대책에는 박물관에 금속탐지기 설치, 배낭이나 가방의 박물관 내 반입 완전 금지, 문화유적지 주변에 비상 경계선 설치, 대기 관람객들에 대한 검색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플로렌스, 베니스, 로마, 팔레르모, 아시시, 폼페이 등이 최우선 경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테러 대비책은 적어도 54명이 숨지고 700명의 사상자를 낸 런던 중심가의 연쇄 폭탄 테러 발생 이후에 취해진 것으로 보다 강화된 경계조치이다. 이태리는 현재 3,000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으며 이슬람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다.

혹평 속에 끝난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BBC, July 22, 2005**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름 예술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관객들은 공연 중간에 자리를 뜨는 등 동 축제 역사상 최악의 페스티벌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르 푸앵트(Le Point)은 이번 축제를 지극으로 표현했으며 르 몽드(Le Monde)지는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함의 연속이었다고 공격했다. 보수 일간지인 르 피가로(Le Figaro)도 이번 축제가 1968년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썼다. 1947년에 시작된 아비뇽 페스티벌은 8월에 개최되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서정에 | 본원 국제교류팀 차장